

북한개발소식

2025 SEP

09

통권 239호

이달의 주제

북한 관광 산업 육성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북한을 위한 기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북한뉴스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
핵무장 급진적 확대”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 관광 산업 육성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SEP

이달의 주제 :

북한 관광 산업 육성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 권두칼럼 **01** 북한 관광 산업 육성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 칼럼_1 **10** 한기범 _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원산 갈마지구 개장
- 칼럼_2 **15** 임을출 _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함의와 전망
- 칼럼_3 **21** 강채연 _ 김정은 체제 관광산업 전략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
- 칼럼_4 **27** 박종수 _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과 러시아와의 협력
- 서평 **32** 다섯가지 렌즈를 통해서 본 탈북민의 화심 이야기
- 북한뉴스 **34**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진적 확대”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지난 7월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가 개장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는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2016년 7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 중단과 연기를 반복한 끝에 2025년에 드디어 개장하였다. 지도자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해당 관광지구를 홍보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7월 11~13일 일정으로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평양이 아닌 원산에서 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 일행과 요트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첫 외국인 관광객으로 러시아 여행팀이 7월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원산을 찾았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관광 산업에 투자해왔다. 그런 만큼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관광은 그 특성상 다수의 외부인의 유입과 접촉을 수반하는 만큼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서 관광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더 나아가 관광 산업이 폐쇄적인 북한의 변화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관광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울 6월 24일 열린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준공식〉



〈금강산 관광 중인 남한 관광객의 모습〉

북한 관광산업의 역사

북한이 관광을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정권 초기에는 오히려 관광으로 인한 개방이나 교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70년대까지는 주로 혁명전통교양 목적 답사나 견학, 참관 같은 특별 관광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80년대

들어되면서 북한도 점점 관광을 산업으로 보기 시작한다. 1984년 제정된 합영법(1984)은 관광업을 합영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제3차 국토개발 7개년 계획(1987~1993)은 관광지 개발을 국가 주요 사업 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1987년에는 세계 관광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외국인 여행 가능 장소로 평양, 청진, 남포, 원산, 함흥, 개성 등 6개 시와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등 명산지 3개소 등 총 9개 지역을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관광에 대한 북한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가운데 김정일 시기 들어서 북한의 관광 산업은 큰 전환기를 맞는다.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기업인 현대 그룹과의 투자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금강산 관광 산업은 2008년 중단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김정은 시기 들어 관광 산업은 지도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룡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관광 산업 육성 의지는 경제특구 지정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총 27개 경제특구·개발구가 선정되었는데, 그중 6개가 관광 전문 경제특구·개발구였다. 이와 함께 2014년 평양관광대학이 설립되었고 각 도의 사범대학에 관광경제학과가 신설되는 등 관광 인재 육성 노력도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북한의 관광업 육성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관광법」(2023.08)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05)을 제정하여 관광 산업의 제도화와 지역별 개발 전략의 법적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새롭게 착수한 지방발전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도 지방의 관광 산업 육성과 연결되고 있다. 해당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

의 상황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은 이를 활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 육성의 이유

이렇게 북한이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산업 육성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관광 산업은 제조업이나 중화학공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 또한 관광 산업은 대북 제재로 인한 제한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원유 및 원자재 수입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관광 산업은 그러한 외부의 물자나 기술 의존도가 낮다. 외화 벌이에 있어 관광 산업은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주로 중국인)이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외화 수입은 9,000만~1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된다.¹⁾

국내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내 관광의 경우 일반 주민보다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특권층이나 평양 시민 및 돈주가 주가 될 것인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주민 유희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외부 정보를 접하며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사회통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²⁾

북한 관광 산업의 딜레마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등 관광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정작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되었음에도 북한의 관광 사업은 제대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은 2023년 초반쯤이었지만, 관광 목적의 방문은 2024년부터, 그것도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재개되었다. 2025년부터는 평양 마라톤 개최 등 서방 관광객 방문이 시작되었으나 제한적인 규모에 머물렀

1) 황주희, 나용우 (2025),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5-10 (2025.03.20.), p.6.

2) 위의 글, pp.6-7.



〈4박 5일간의 나선 여행 후기를 영상으로 남긴 독일인 인플루언서 루카 페르트벵게스〉

다. 25년 2월에 서방 관광객의 나선 지역 관광을 재개하기도 했으나 1달도 안되어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전체 관광객의 90%에 육박했던 중국발 관광은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관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광객 유치에는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관광 산업이 가진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관광은 본질적으로 개방을 전제로 하는데, 김정은 정권은 외부 정보의 유입과 확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 활성화를 하면서 외부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저지하기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실상도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최근 나선 지역 관광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화장실도 가이드에게 말하고 가야 한다”,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방명록 문구조차 세심하게 검열당했다”, “북한은 가난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등의 북한 여행에 대한 감상을 유튜브나 틱톡 등 SNS 미디어에 게시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알려졌다. 서방 관광객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가이드에게 물어보았던 사례도 있었다. 아주 소규모의, 짧은 관광 일정에서도 이러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본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리가 없다.³⁾ 거기에 더해 비교적 대북 제재의 영향을 적게 받는 관광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제재로 인한 투자 유치 및 관광객 모집의 어려움 등 악영향도 무시할 순 없다.

권숙도(2020)⁴⁾는 북한 관광 산업의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를 세분화하여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관광 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북한 체제에 서로 다른 측면에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딜레마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적은 초기자본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이 이에 적합하지만, 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해외 관광객 유입이 주민들의 인식과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꿔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해

외 투자나 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대북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딜레마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북한의 관광객 비중이 한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관광 협력 시도가 원활하지 않고, 그 외 관광 대상국 확대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의 관광객들을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을 찾은 약 200만 명의 한국 관광객,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대다수였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발 관광은 관광 외적 요인, 즉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국제적 문제에 좌지우지됐다. 한국과의 관광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역시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핵 실험 등 정치적·군사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주도의 관광 중단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2025년 8월 기준으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열악한 북한 관광의 현주소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려는 듯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된 러시아의 관광객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2024년 오직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만 관광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러시아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총 881명에 그쳤다.

이렇게 저조한 러시아 관광객 유치 이유를 살펴보면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지리적인 한계이다. 러시아인들의 다수가 거주하는 우랄 산맥 서편 유럽 러시아 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멀기 때문에 관광을 위한 이동에만도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추운 러시아의 기후적 특성상 주로 온난한 기후의 관광지를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러시아인들의 주요 관광지는 흑해 연안의 소치와 바이칼, 크림반도 일대이며 해외로는 튀르키예, 중동, 태국 등이 꼽힌다.

비용적인 면도 문제이다. 현재 북한 관광 상품들은 타 지역에 비해 1.5배 정도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평양-원산-마식령 스키장을 거치는 7박8일짜리 여행 상품의 경우 미화 1,850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러시아 평균 월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반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페리를 이용해 한국 동해안으로 들어와 서울을 여행하는 패키지는 900달러 수준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베트남을 여행하는 9일짜리 상품은 1,150달러다. 그러다보니 러시아인들에게 북한 관광은 타 지역

3) 위의 글, pp.7-8.

4) 권숙도 (2020),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관광산업: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 13 권 2호) 2020년 10월, pp. 155-184.



〈지난해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들〉

관광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⁵⁾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았지만 중국발 관광객의 경우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중국인 관광객은 그 수가 30만에 달했지만 대부분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진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의 단기 여행

이어서 그 수익이 크지 않았다. 이번에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의 경우 장기적인 여행 일정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지만 중국인 입장에서는 국경에서 멀고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상황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

북한 관광이 가지는 그 특유의 제한과 통제 역시 북한 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객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일반적인 해외 관광객 입장에서는 과도하다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국내외를 여행해 온 중국과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주로 조부모나 부모가 살았던 사회주의 체제를 체험해 보려는, 몇십 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는 일종의 ‘홍색관광’이 주가 되어왔다.⁶⁾ 북한이 유치할 수 있는 주요 관광객들인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도 북한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면, 북한이 가진 관광지로서의 입지나 경쟁력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한 당국이 바라는 관광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⁷⁾

북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

이렇듯 북한의 관광 산업은 그간의 투자와 지도자의 의지, 비교적 저비용으로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낮은 경쟁력과 고비용 등으로 인해 그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어

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외교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철폐를 이끌어내고 외부와의 관광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관광 협력과 관광객 유치 모두에 있어 매력적인 대상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의 사례와 같이 한국은 가장 안정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개발 중인 원산-금강산 지역은 접근성에 있어서나 과거 금강산 관광을 육로와 해로 양쪽으로 진행했던 경험으로 보나 한국만큼 적합한 협력 대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국과의 관광 협력이 가능하려면 먼저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현 제재하에서는 한국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없고, 관광객 유치도 어렵다. 관광 산업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적다 뿐이지 대북 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만 원활한 발전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해안 콘도 관련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날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⁸⁾ 이번에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관광이 의미 있는 키워드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관광 산업 관련 의제가 북핵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좋은 관광지와 관광 투자처로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북핵과 대북 제재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간 북한이 좋은 관광지 또는 투자처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왔다. 먼저 관광객을 대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상태이고 유럽 등에서도 북한을 위험한 여행지로 인식하여 코로나 이전부터 관광객 수 감소를 겪었다.⁹⁾ 그동안 북한은 관광객에 대하여도 무리한 각종 금기와 제약을 강요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왔다. 과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계기가 되었던 박양자씨 피살 사건이나, 관광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17개월간 복역하고 혼수상태로 귀국하여 사망한 오토 뎀비어의 사례 등 그간 북한이 보인

5) “원산이 뜬다?...중려는 왜 동해를 원하나, 그리고 일본은 왜 반발하나”, BBC 코리아 (2025.08.0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8z54j1ne2o>>

6) “[경제와 우리 생활] 중국인의 이색적인 북한 ‘홍색관광’”,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4.08.2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econ-life-08202024162742.html>

7) 이상근(2025), “중러 대상 북한 외래 관광에 대한 평가와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25년 6월호, pp. 40-51.

8) “김정은 엄청난 콘도 역량 보유” 트럼프 발언, 강원도 ‘이곳’ 때문?, 조선일보 온라인 (2025.01.2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1/22/LFRJ33JNY5ELTFODEFWNX-YMU54/>

9)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유럽 관광객에도 영향...특별보험 요구”, VOA 2018.01.16. <<https://www.voakorea.com/a/4209038.html>>

극단적인 경직성은 관광 산업 발전의 근본을 흔들어왔다. 관광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관광 대상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데 북한은 계속된 군사 도발과 수시로 발생하는 외국인 억류 사태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겪어왔다. 또한 최근 러시아 및 서방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특유의 억압적이고 불편한 경험은 관광지로서의 북한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 그간 열악했던 외부 투자 자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금강산 관광단지 철거 사태나 과거 오라스코م 사례 등 그간 북한은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외부에서 투자한 자산이나 투자금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북한의 과거의 행보는 안정된 투자처로서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때라야 관광업의 진흥도 가능할 것이다.

관광산업 발전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 넓은 관광객 유치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관광지와 투자처로서 변모해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즉 북한이 관광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관광산업이 가진 딜레마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관광 산업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과 함께 북한의 국정 방향성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 같이 과거 북한과 유사한 노선을 걸었던 후기공산주의국가들은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특히 베트남과 쿠바는 체제 생존을 위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그 덕을 톡톡히 보아왔다. 베트남과 쿠바에서 관광산업은 2019년 기준 GDP의 각각 7%와 10.2% 가량을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베트남은 1991년대 ‘도이 머이’ 정책을 통해 경제 개혁과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함께 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면(경제 개방 이후 관광 개방),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던 상황에서 관광 산업 육성과 관광업 중심의 외자 유치를 통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였고 2008년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개방이 더욱 진전되었다(관광 개방 이후 경제 개

방).¹⁰⁾ 북한 역시 현재와 같은 비이성적인 수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일정 부분 억압을 완화하면서 경제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이 분명하다.

현재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독재국가,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 외국인에게 적대적이고 관광객으로 방문하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국가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북한이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관광객 유치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는 결국 개혁·개방 등 북한의 국가 방향성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경제 상황 개선이나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만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완화,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 확대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완화 및 중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노선 변화는 북한 주민들과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드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이 단순히 이미지 만들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붙잡고 있는 핵과 미사일이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고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계기가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10) 박성호(2021), “김정은 시기 북한의 관광산업과 체제 생존: 베트남·쿠바와의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29집 4호, pp.1-30.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원산 갈마지구 개장¹⁾

한 기 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7월 1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북한은 6월에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할 예정이다. 갈마반도의 긴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김정은의 구상에 따라 2014년부터 시작된 갈마지구 개발은 10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완공되었다.

김정은은 특이하게도 10년 전 핵 개발에 본격화하면서도 ‘경제특구 설치’를 지시했다. 10년 후 핵미사일 고도화 와중에서도 갈마지구, 삼지연 지구 등 관광지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갈마지구 관

광이 활성화되면 장차 금강산-원산-백두산 등으로 동해안 관광 벨트 조성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듯했다.

김정은은 외화 수입을 노리고 있으나 체제의 호전성으로 한계가 있다. 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관광을 통제하는 모습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체제의 폐쇄성에 따른 한계, 김정은의 정책적 딜레마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함께 “김정은이 긴 해안선과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트럼프의 대북 관광 협력 제안 가능성과 김정은의 예상 태도도 점검했다. 그리고 남북 관광 협력 문제도 살펴보았다.

김정은의 원산-금강산 관광지대 개발 독려

원산 갈마지구는 김정은의 적극적인 관여로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 2024년 12월에 완공해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진흥으로 외화를 벌겠다는 구상으로, 원산 갈마지구를 인근 법동군 소재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 관광지구와 연계해 원산-금강산 관광지구로 지정했다. 2014년부터 원산 갈마반도의 긴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호텔 건설 등 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4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재난, 코로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다가, 6차례나 갈마지구를 찾은 김정은의 독려로 속도가 다시 붙어 지난해 12월 갈마지구 호텔과 부대시설이 완공되었다. 올해 들어 갈마역~원산 갈마비행장 사이에 철도 복선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6월에 개장되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러시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은 경제특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전에 5개의 경제특구를 추진했다. 1991년 12월 나진·선봉무역 지대 설정을 시작으로 10년 후인 2002년에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설치가 추진되었고, 2010년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가 추진되었다.

그중 신의주 특구는 중국의 견제로, 황금평·위화도 지대는 장성택 숙청으로 중단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 개발 와중에도 20여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해주 인근 강령 국제녹색지구, 평양 인근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등을 지정했으나 인프라와 투자 부족으로 대부분 지지부진 상태다.

장기적으로 동해안에 관광 벨트 조성 예상

김정은은 집권 초에 ‘폐쇄형 특구와 관광이 외화벌이에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그는 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지시하면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현대적 시설 건설을 독려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금강산관광은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다가, 그해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기분 나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변덕을 부렸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5억 불 이상을 벌어들인 금강산 관광을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했다. 매년 1억 불 정도의 수입을 거둔 개성공단 사업도 2016년 2월 핵 개발 지속으로 중단을 자초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이후에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자체 시설을 건설해 국제관광 지대로 운영중이고, 개성공단도 우리 시설을 자체 생산활동에 활용 중이다.

김정은은 2024년 12월 말 완공된 원산 갈마지구를 찾아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나라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금강산과 갈마지구를 연결해 잘 꾸리고, 삼지연 등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백두산 삼지연 일대에 대해선 2015년 ‘이 일대를 관광특구화하라’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 여관을 현대식 호텔로 바꾸었고, 김정은은 2024년 7월 새로 건설된 호텔을 둘러보면서 ‘백두산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삼지연에 대규모 스키 관광 휴양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백두산 등반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지연 비행장 개보수, 관광철도 부설, 백두산

1) 이 글은 월간 북한 6월호에 실린 글을 저자의 허락 아래 게재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재개발 공사를 마친 삼지연시의 모습. 당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양강도 삼지연군(郡)을 삼지연시(市)로 승격시켰다.〉

관광도로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 금강산-원산-백두산 지역에 단절된 거점 형태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거점별 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7번 국도를 축으로 한 동해안 지역을 관광벨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관광 활성화 노력과 통제의 딜레마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지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원산투자개발 무역회사’를 설치하고, 관광대학·관광학부 개설을 통한 인적자원도 양성했다. 그리고 대외 관광 확대 및 관광객 편의 보장을 명시한 ‘관광법’을 채택(2023년)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부심 했다. 일례로 북한은 2015년 및 2018년 대외 웹사이트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호텔·발전소·철도·식당·편의시설 등 14개 투자 대상을 소개한 사례가 있다. 14개 투자 대상 중 호텔이 7개로 많았고,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3억 2천여만 달러에 이르는 원산-금강산철도 리모델

링 사업이었다.

올해 북한이 선보인 주요 관광상품을 살펴보면 4월 평양국제마라톤 투어(평양관광 포함, 베이징 항공편 포함 1278유로), 5월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외국 관광객 초청, 7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여행사가 모집 중인 갈마여행 프로그램(블라디→평양→원산, 7박8일 1천400불) 등이 있다. 근년에 북한이 유치한 해외관광객 규모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방북한 외국 관광객이 약 3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외화 수입은 9천~1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그중 9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그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가 단둥에서 출발해 당일치기나 1박2일 접경지역을 둘러보는 단기 여행이라서 수입은 많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다가 지난해부터 러시아를 대상으로 시범 관광(2024년에 881명 방북)을 허용했고, 12월에는 두만강역-하산역을 연결하는 여객열차를 개통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 두만강에는 양측을 오갈 수 있는 철교는 있으나 자동차용 교량은 없다. 올해 4월 말에 북러는 두만강에 자동차용 교량 ‘우정의 길’을 착공했다.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월에는 5년 만에 나선시를 서방 단체 관광객에게 개방했다. 유럽의 북한 전문관광업체(코리아 콘솔트) 주선으로 나선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이 후일담을 SNS에 올려 널리 알려졌다. 이들은 “화장실도 가이드에게 말하고 가야 한

다”거나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방명록 문구도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 또 “북한이 가난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등의 평가를 올렸으며, 그 직후 북한은 이 관광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북한이 관광지 개발 및 외래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외화 부족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극복하려는 것이다. 팬데믹이 끝나고 물자 수입 규모가 다시 커지면서 무역적자가 급증(2022년 7.6억불 → 2023년 178.4억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북한이 당장에 주력하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 유치로는 관광 수입에 한계가 있다. 극동지역은 인구도 적고 소득도 낮아 관광수요가 제한적이고 서부 러시아 지역은 이동비용이 커서 북한 관광의 효용성이 낮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북·중 정치적 관계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여 불안정하며, 북한의 관광 인프라 부족과 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관광 활성화와 역행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러에 편중된 관광객 유치를 한·미 등 서방권으로 확대해야 하나 서방 사람들은 방북을 꺼린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 반민주·반인권성으로 과거 우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미국인 오토 캠피어 사망사고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갑작스러운 일정 중단 등 관광상품의 불확실성도 문제다. 앞에서 사례로 든 나선 관광 중단 외에 5월에 예정된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외국 관광객 초청 프로그램도 일주일 앞두고 북한당국이 “국가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다른 설명 없이 비자를 취소해 무산되었다(5.6 NK뉴스).

트럼프의 대북 콘도 협력 제안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 “김정은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다. 우린 잘 지냈다. 그(김정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때 트럼프는 “북한은 해안선이 길어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산 개발이나 가자지구 휴양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식하려 하듯이, 북핵 문제도 콘도 개발 참여나 관광사업 유치 등의 대규모 경험 제안으로 풀어나가려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의 대가의 하나로 원산 특구 개발을 제시한다면 김정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핵보유’를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절충하면서 원산 개발 협력을 부수적으로 제안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나 우선, 김정은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미 완공된 호텔과 부대시설이 있고, 김정은식 개발은 과거 금강산처럼 토지 전체를 임대해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시설 투자로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미국 쪽 사정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하기가 어렵고, 트럼프의 임기 내 핵문제와 관광 협력 문제를 함께 엮어갈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

특히, 북한이 서방의 투자나 대규모 관광객을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 개장 합의와 전망¹⁾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 목표와 비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에 위치한 대규모 관광단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무려 11년 전인 2014년 6월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명사십리’로 잘 알려진 긴 백사장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호텔, 자취숙소, 민박 시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수상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을 포함해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단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화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

1) 이 글은 북한연구소가 발간하는 월간 『북한』 7월호, pp.12~21에 실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비전, 합의와 전망”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북한의 콘도 역량에 관해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KBS뉴스 보도 캡처)〉

수용할 만큼 개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썩어빠진 사상 문화의 침습’을 경계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협상한다면 ‘핵보유국’ 인정에 집중할 것이며, ‘콘도 협력’은 부차적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원산 갈마지구 휴양시설을 개장하면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에 제한적으로 개방할 뿐, 여러 통제 조치를 풀면서 서방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관광개발 협력 문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①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 ②남북 간 격차해소를 위한 북한경제의 발전(development), ③남북 경제의 제도적 통합(integration)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북 관광 협력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독재정권에 대량 현금(bulk cash)이 유입되고, 일방통행 관광이라 개방 효과도 제한적이라서 북한의 선호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는 대북 관광 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을 고려하여 서해안(해주)에는 건강산업, 평양-남포에는 디지털 산업, 동해안(원산)에는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소규모 시범단지 조성 → 중·소규모 특구 조성 → 특구와 배후 지역을 연계한 광역개발 등 단계적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3대 분야, 5대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3대 분야는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발전 협력이고, 5대사업은 ①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③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④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⑤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대북 경험의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그간의 남북 경험역사는 경제적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렇다고 독일식 정치주도형 통합은 요원하므로,북한이 개혁·개방 가능성을 보일 때 적극적인 경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대한 경제적 접근법은 북한 독재정권이 단물만 빨아먹고 변화를 거부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으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에 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출현하여 개혁개방의 기미를 보일 때 적극적인 경험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독재정권이 여전히 경제특구 시장경제와 여타 지역 계획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할지라도 세습 정권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북한 동해 지역 관광개발 협력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로의 확장 및 포장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기차역으로 원산 갈마역이 2025년 6월 11일 준공되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9~1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다수 들어서 있다. 북한은 개장 이후 여름 성수기를 활용해 우선 러시아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유치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북러 관계를 배경으로, 나진항을 통한 크루즈선 운항과 철도 연결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려는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철도 복선화, 새 기차역, 도로 확장은 공항, 항구, 철도를 통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관광 안내 서비스와 운영 수준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향상시키라고 지시하며, 체육 활동 중심의 관광, 휴식과 웰니스 중심의 관광, 해상 경치를 즐기는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광문화지구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하며, 두 지역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관광지원 법제 구축, 교통 인프라 건설과 역할

2025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물이다. 이 법은 관광지구의 체계적 운영, 건설 마무리, 서비스 제공, 노동력 동원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전략과 공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실용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의 주요 내용과 의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첫째, 운영 규칙과 절차의 명확화로, 관광지구 내 호텔(12개), 콘도(27개 동), 약 2만 개 객실의 관리, 서비스 제공, 관광 상품 개발(체육·휴식·해상 관광 등)을 체계화한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우호 국가 관광객 유치에 신뢰를 부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노동력 동원과 관리를 규율해 공사 지연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앙집권적 통제력을 강화한다. 이는 주민 동원과 결속을 통해 체제 안정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를 거놓는 것이다. 셋째, 특별구역 지정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라선 특구와 유사한 독립적 경제구역으로 설정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려 한다. 이는 대북 제재 하에서 무역과 자원 개발이 차단된 상황에서 관광을 외화 수입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넷째, 금강산과의 연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통합 관광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삼지연 등 다른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의 연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올 6월 12일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진 갈마역 (사진=노동신문)〉

법적 인프라 정비와 동시에 교통 인프라 건설도 주목할 만하다. 갈마역은 북한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에 위치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핵심 교통 인프라이다. 이 역은 관광지구를 원산갈마비행장, 나진항, 기존 철도망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사진 분석(2024년 7~9월)에 따르면, 갈마역은 철도 복선화, 새 선로 건설, 역 주변 도로 확장과 함께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현대적인 역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 대북 제재, 자재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2018년 예정이 2025년으로 연기)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김정은의 현지 시찰 이후 노동력을 집중 동원해 개장 일정을 맞추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역 건설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다. 갈마역은 기존 원산역과 달리 관광지구 전용으로 설계되어, 관광객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지역 주민과 특권층의 관광소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관계 강화로 나진항 크루즈선과 블라디보스토크-원산 철도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 중산층 및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갈마역은 이들의 관광지구

접근을 지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시에도 철도 연결은 저렴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다. 역은 호텔, 레스토랑, 상점 등 관광지구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발전계획에 따라 시·군에 건설된 공장에서 생산된 해산물 가공품 등 특산품의 물류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실태와 전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제한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 10만 명 목표는 여러 제약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는 외화 유입과 서방 관광객 방북을 차단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참전 상황 등은 관광객의 안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2020~2023년 국경 폐쇄 이후 관광 시장 회복이 더디고, 전력 부족, 제한된 항공-철도 연결,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은 여전히 외국 관광객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관광객은 북러 관계 강화로 배와 철도를 통해 중산층 및 단체 관광객이 갈마역을 이용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 간 직항편과 갈마해안관광지구까지 10~15시간 걸리는 해상 페리운항 등 관광객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양의 러시아대사관 직원들이 첫번째로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 여행에 적극적으

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연중 관광 프로그램과 노선도 개발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러시아 관광객의 현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려한 시설을 갖췄지만, 러시아인만 입국 가능한 제한적 개방과 텅 빈 해변, 미완성 인프라로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휴가를 보낸 러시아인 관광객들의 경험담을 보도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적지 않다.²⁾ 갈마해안관광지구는 6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 준공식을 진행했고, 7월 1일에 개장했으며 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많은 부분이 아직 미완공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평양을 거쳐 이곳을 방문한 러시아 단체 관광객 13명이 1주짜리 관광상품에 지불한 금액은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비용 1400달러(194만원), 러시아 여행사에 내는 약 3만5000루블(61만40000원)까지 합해 대략 2000달러(278만원)였다고 WSJ은 알렸다. 상품에는 매끼 식사·항공편, 그리고 기타 여행 비용이 포함됐으며, 간식, 다른 부수 활동, 추가 레저 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북한 내 국인과 외국인의 해변 구역이 서로 분리돼 있으며 풀장·온수 욕조·사우나·슬라이드가 설치된 워터파크에는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제한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제트스키와 쿼드바이크는 그냥 무료로 빌려줬다고 전했다. 한 러시

아 관광객은 “모든 게 완전히 새것이었고, 냄새까지도 완전히 새것이였다”며 이제는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해안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며 “리조트 전체에 손님이 우리뿐인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광객들이 없어서 서비스는 훌륭했다면서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는 루블화는 받지 않았으며, 러시아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려면 달러·유로·위안화로 예치금을 내고, 계산대에서 전자팔찌를 찍으면 돈이 예치금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었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관광지구 운영에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어 이 지구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해석했다. “방해하지 마시오(Do not disturb)” 팻말을 문고리에 걸어뒀는데도 호텔 직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해 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샤워를 하려고 미리 보일러 설정온도를 높여뒀는데, 직원이 방에 들어와서 최저 온도로 낮춰버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광객도 단체 관광 재개로 저렴한 패키지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2019년 30만명까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데, 향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이 허용된다면 북한에게는 원산갈마관광리조트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현지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소규모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다. 외국인 유치가 저조할 경우, 내국인 특권층은 마식령 스키장과 유사하게 원산갈마해안관광지를 국내 휴양지로 활용하며 자본 순환을 유도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과 사회주

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³⁾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 관광객은 대북 제재와 안전 우려로 인해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주로 러시아 관광객, 북한 내국인을 중심으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제재 완화와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될 경우 금강산-원산 통합 관광벨트로 남한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현재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3대 악법(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상당 기간 남한 관광객이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회와 도전 요소들

지방발전계획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은 김정은의 리더십과 ‘사회주의 현대화’ 비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도구다. 김정은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대한 집착은 경제적, 정치적, 개인적, 지정학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얹힌 결과이며, 그의 통치 전략과 체제 생존 전략을 상징한다. 대북 제재로 무역과 자원 개발이 차단된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간주된다. 이 프로젝트는 김정은의 리더십과 체제 안정성을 과시하는 수단이다. 제재 속에서도 현대적인 관광지를 건설해 북한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주민에게 번영의 비전을 제시해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원산은 김일



〈2014년 5월 발표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도'. 위로부터 원산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이다. (사진=통일뉴스)〉

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즐겨 찾던 휴양지이다. 그는 원산을 자신의 업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권력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비전을 구체화하며 대규모 건설로 통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정학적으로,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관광 협력 재개로 수익 기반을 넓히려 한다. 중장기적으로 금강산과의 연계는 남북 관계 개선 시 협상 여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눈여겨 볼 만하다. 관광산업은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창출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현대적인 관광시설은 문명국가 북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실제 도로와 철도 등 관광인프라는 주민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창출된 관광 수익이 핵 개발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코로나19

2) Timothy W. Martin and Kate Vtorygina, “Inside Kim Jong Un’s New Beach Resort, Where the Only Foreigners Are Russian,” Aug. 1, 2025.

3) 노동신문은 7월 1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먼저 개장한 이후 “당의 온정속에 마련된 문화휴식터마다에서 인민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 울려 퍼진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관광산업 전략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

강 채 연 교수 (국립통일교육원)

들어가며

2018년 가을, 하얀 설원이 펼쳐진 마식령 스키장이 국제 언론의 카메라에 집중됐다.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세계적 규모의 현대적 스키장이란 선을 보였던 때와는 달리, 북미 비핵화회담 배경에서 더욱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약 11년에 걸쳐 최근에 완공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2014~2025)도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비치며 북한 관광산업의 붐을 노리고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현재 북러협력을 배경으로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에서 관광산업은 국제 제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생존 전략이자 대외를 향한 독특한 메시지 창구로, 지역 개발과 체제의 현대적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 프로젝트로 주목된다. 실제로 2025년 6월 24일, 김정은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단지를 직접 참관하며 이를 “올해의 가장 위대한 성과”로 치켜

세운 장면은 상징적이다. 국제 제재 속에서도 관광을 경제·외교·문화가 융합된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려는 그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2010년대 이후 김정은 체제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였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의 관광정책이 제한적 교류와 외화벌이에 머물렀다면, 김정은은 관광을 제재 회피, 지역개발, 대외 개방,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삼아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속에서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은 제재



〈지난해 12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해안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후 차단해놓은 한류, 즉 반동사상문화의 유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물론 내부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기존 제재와 지정학적 정세불안이 지속될 경우 북한 관광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핵개발 고도화의 지속,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등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남북 관광협력 실현 전망

이재명 정부는 개별관광과 함께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재개를 경제 협력의 핵심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상호 실익을 도모하려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구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과 함께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 제안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남북관계에도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은 금강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김정은의 통합 관광문화지구 비전에 따라 두 지역을 연계한 관광벨트로 시너지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 철도 복선화, 도로 확충, 원산갈마비행장 연결은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접근성을 높이고, 남북이 금강산-원산 패키지를 개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신뢰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즉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전환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광사업을 지렛대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앞당

길 수 있다. 남북한은 이미 1998~2008년 200만 명이 방문한 금강산관광지구처럼 통합 관광벨트를 형성해 경제 협력의 이익을 경험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과 원산을 연계해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를 조성하려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남북한의 협력에 의해 철도, 도로, 항공로도 열린다면 남한 관광객뿐 아니라 남한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길도 활짝 열릴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 상황의 도래를 전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핵화의 단계적인 진전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안전 우려 해소를 통해 서방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관광객의 방북을 가능하게 하고, 제재 완화는 자재, 기술, 자본 유입을 촉진해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의 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실험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을 넘어, 북한이 국제정치·경제 구조 속에서 ‘정상국가’로 살아남기 위한 ‘다목적 생존전략’의 한 축이다.

세 시대의 관광정책: 연속과 변화를 읽다

북한의 관광정책은 시대마다 뚜렷한 색채를 띠었다. 김일성 시대의 관광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친선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치 선전형이었고, 금강산과 묘향산 같은 명승지가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당시 관광은 국제화와 거리가 멀었고 이념 전파와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며 남북관광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현대그룹 주도로 1998년에 개시된 이 사업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남한 관광객을 유치하며 남북관계의 혁신적인 전환 모델이 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었으나 외화벌이에 치중했다는 구조적 한계와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으로 인한 중단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관광사업은 단순히 사업적 범위나 의미를 넘어 관광산업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김정은은 대규모 현대식 인프라를 건설해 관광객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서구권까지 확장하려 했다. 적어도 2014년경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의 관광교류 및 협업에 참여한 국가 및 여행사들이 무려 수백이상에 달한다. 특히 관광협력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정부차원보다는 직간접적인 민간차원(개인, 기업, 단체 등)을 통해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들을 아우르는 약 100여개 이상의 여행

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김정은의 관광산업에 대한 열망과 북한 관광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¹⁾ 마찬가지로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건설 등은 국제 수준의 시설 구축을 노렸고,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제재 우회 전략의 유일한 창구로, 대외 개방 명분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다중 목표를 안고 추진됐다.

이러한 김정은식 관광 전략의 대표적인 기동들은 다음의 4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다. ①관광 인프라의 현대화, ②관광정책과 관광제도의 ‘대수술’, ③대외 관광협력의 활성화, ④지속가능한 관광교육과 이채로운 관광 확대 등이다. 우선 관광 인프라의 현대화 문제다. 예컨대, 원산갈마해안관광단지 20,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리조트 단지로, 해변 호텔, 워터파크, 요트 마리나까지 갖추고 북한판 종합 해양휴양도시의 중심축을 이룬다. 또한 백두산 자락에 위치한 삼지연시 역시 현대식 관광도시로 변모해 국제관광객을 일부 수용하는 체제로 개편됐다. 뿐만 아니라 평양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대표성을 갖는 관광상품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거의 10여년째 복새통이다.

두 번째로, 기존 관광정책의 손절과 새로운 관광정책의 수립, 그에 따른 관광제도의 기반 강화 전략도 중요한 축이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특별관광지대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했으며, 관광개발구법을 마련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접경지역들에서는 세제 혜택으로 관광을 국가사업으로 뒷받침하고

자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 외교화’ 전략을 병행하여 러시아와 직항 항공편을 개설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다목적 교류에 관광사업을 병행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에 북한관광 사무소들을 설치하고 친선국 중심의 관광객 유치 정책을 넘어 서구 및 자본주의 국가 여행사들과 제3국을 통한 관광객 유치(단체 및 개별)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세 번째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도 눈에 띈다. 김정은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외신 기자를 초청하거나 SNS 홍보를 통해 관광친화 국가로써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미디어 관광 전략도 추진했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관광비자 발급의 유연성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냈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관광인력의 육성과 다채로운 관광개발에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스키관광, 헬기관광, 승마관광, 자전거관광 등 이채로운 관광개발을 넘어 의료·웰니스 관광이라는 새로운 분야에도 발을 들였다. 실제로 2014년에 관광 전담교육기관이 평양 관광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교육과 해외교사 파견이 진행 된 바도 있다. 특히 2019년말부터는 의료관광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른바 ‘치료관광교류회사’를 설립하고 헬스케어 기반의 관광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노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북한 관광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의 공백기를 지나 2023년에는 제한적 재개가 이루어져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이 다시 북한 땅을 밟기 시작



〈북한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올 4월 6일 6년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전 세계 46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했다. 그리고 2024~2025년에는 원산 갈마해안 관광단지 완공과 삼지연 재정비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러시아·북한 간 관광협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전략적 동맹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김정은은, 관광을 단순한 외화 획득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외교·군사적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관광개발과 투자, 협력에 대기중인 북한

그렇다면,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관광투자와 협력에 대기중인 주요 관광개발지구와 기구들은 어떻게 될까?

우선 주요 관광개발지구 유형들로는 중앙급과 지방급이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북한이 설정한 가장 큰 규모의 중앙급 관광개발구로 면적이 440km²에 달한다. 이 지대는 원산, 통천, 고성 등을 포괄하며 생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적 휴양 및 치료 관광, 역사유적 관광을 표방하고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

1)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호(2020) 참고할 것.



〈북한의 관광특구 (이미지=통일시대 2020.01호)〉

지구는 바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구로, 호텔 17개, 여관 37개, 상점 약 29개가 건설되어, 4km의 해변을 따라 공연장, 물놀이장, 역사박물관 등이 조성되었다. 지방급으로 대표적인 관광개발지구들은 무봉국제관광특구, 온성심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등이 있다.

무봉국제관광특구는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한 20km² 규모의 관광개발구로 백두산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중국 허룽시와 광성투자회사가 참여하여 1단계 개발을 완료했으나 북핵 문제로 추가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성심관광개발구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위치한 1.69km² 규모의 개발구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투먼시와 마주하고 있다. 역시 중국 투먼시가 50억 위안(약 890억원) 투자를 계획했으나 대북제재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청수관광개발구는 평안북도 삭주군에 위치한 20km² 규모의 개발구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마주하

고 있다. 2014년 평북인민위원회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협조로 관광개통식이 열린바 있다. 신평관광개발구는 황해북도 신평군에 위치한 8.1km² 규모의 개발구로 평양-원산 관광도로의 중간 지점에 있다. 구룡폭포, 달해산성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에이전트를 통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나진경제개발지대나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 합영합작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 특구지대들에도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단위로 다양한 형태의 역사, 자연, 문화 관광생태계들이 재개발 및 현대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적지 않은 기구들도 구축되어 있다. 우선 1986년에 설립된 정부급 관광관리기구로 국가관광총국이 있다. 총국은 내각 산하의 정부급 관광관리기구로서 북한의 관광사업 전반을 정책적으로 지도관리하며 관광계획, 관광조사 및 개발, 관광선전 및 시장촉진, 관광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역할과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국내 여행사들은 물론 해외 여행사무소들로까지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관광산업은 다수의 국영 여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행사 수도 크게 증가했다. 우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아울러 비교적 역사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행사는 조선국제여행사(KITC)다. 1953년 8월에 설립된 북한 최대의 여행사로, 현재 약 180여 명의 다국어 가이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00여 개 여행사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는 1985년 설립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산하 여행사로, 각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관광을 담당한다. 조선

국제체육여행사는 1997년에 설립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 여행사로, 체육관광을 전문으로 하며 아시아와 유럽의 여행사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 김정은 정권에서 신설된 여행사들로는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2011년),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2012년), 만포여행사(2014년), 평양고려국제여행사(2015년), 조선민족유산국제여행사(2015년), 만경국제여행사(2016년), 고려항공여행사(2016년), 금수강산관광여행사(2017년), 려명골프여행사(2017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북미 등에 공식 및 비공식 해외사무소들을 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직접 또는 제3자 북한관광유치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주요 관광지구별로 전담 개발총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금강산개발총회사 등을 들 수 있겠다.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가능성과 리스크

기회는 분명하다. 과거 남북 금강산 관광협력이 육로로, 전세기로, 배로 오가며 수십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한 경험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현재이자 희망이다. 여기에 북한이 구축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는 남북 공동의 활용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가장 멀고도 가까운 육로, 민족의 육체와 맞닿아있는 남북의 잠재력이다. 남북관광의 기회는 일차적으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간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에도 맞닿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광협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다. 유엔 제재는 여전히 투자와 물자 반입을 제한하는데다가 관광객

안전 문제는 불투명한 채 남아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이나 과거 주기적으로 보여왔던 북측의 일방적 계약 변경 문제,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의 사업 중단 위험 등은 북중 관광협력과 남북 관광협력 사이에서 선택의 이중구조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에겐 분명한 선택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최근 양측의 대북확성기 철수라든가, 우리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조금씩 드러내는 북한정부의 움직임도 빠르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 발전과 확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북한 지도부로서는, 보다 풍부한 잠재력(관광객 유치)을 갖고 있는 남북관광협력 사업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국가 대 국가관계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단체나 개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관광협력의 경우로만 한정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겠다. 첫째, 실용적 교류의 측면에서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된 관광·문화 교류, 지방과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단계적 모델이 우선시된다. 둘째, 대북제재의 예외 가능성이 높은 생태·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셋째, 제3국 경유나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관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다. 개별관광을 포함하여 관련 문제 제기는 이미 필자가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²⁾ 당시 김정은 정권의 관광산업 전략들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북한관광 네트워크

2)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관광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통일부 신진학자연구보고서, 2019, p.234; p.236.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과 러시아와의 협력

박종수 (前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갈마해안에서 조망하는 북한의 관광산업

지난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화려한 준공식을 가졌다. 동해안의 명사십리를 따라 조성된 2만명 수용의 대규모 리조트단지다. 스페인의 휴양도시 베니도름을 모델로 개발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로 목표를 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개화의 새 경관”이자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사업”으로 평가하면서 노동당 창건 80주년기념의 핵심성과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날 눈길은 끄는 대목은 마झे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외국인 귀빈으로 참석한 것이다. 이어 7월 중순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원산 앞 바다의 요트위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김위원장이 외교사절을 평양 대신에 원산을 택한 것은 새로 개장한 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간 직항노선도 준비중이다. 리정혁 국가

관광총국 부총국장도 “세계 여러나라 사람이 즐겨찾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국제적 홍보에 나섰다.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외화벌이가 목적이다. 지리적 인접성이나 관광객 규모를 고려하면, 당연히 중국이 우선 대상이다. 그 다음은 한국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인구도 적고 그나마 대다수가 유럽지역에 밀집해 있다. 극동시베리아에서 북한까지 관광할 주민은 기대한 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북측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김정은은 세계적인 관광명소 스위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온몸으



〈7월 12일 원산 앞바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요트 회담을 가졌다.〉

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정된 결과로, 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의 수정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지 불과 1주일 후인 2019년 10월 23일, 당시 김정은은 한국정부를 향해 “금강산 남측시설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하면서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혹은 개별차원의) 관광협업을 암시한바 있다. 이처럼 바로 6년전, 잠시 스쳐지나갔던 이 22자의 의미는 남북관계의 실용적 관점과 평화적 접점을 탐색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남겨진 현실적인 숙제일 수 있다.

결론: 관광, 체제와 평화의 다리 될까?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은 과거와 달리 경제·정치·외교가 결합된 복합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는 거대한 관광 인프라와 친선국 대상 관광정책을 통해, 외화 수입·체제 이미지·국제관계까지 결합한 전략적 시도를 이어왔다. 원산의 바닷바람과 백두산의 설경, 그리고 금강산의 수려한 절경이 한민족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평화기조는 바로 그 가능성 위에 서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는 정치적 구호나 회담 사진 속에 머무르지 않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생활 속의 평화, 체감 가능한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경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함께 들으며 분단의 철책을 넘어선 등산로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은 전쟁과 대립의 언어

보다 협력과 공존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관광은 그 평화를 일상 속에 심는 가장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다. 만약 원산의 해변이 남과 북의 가족이 함께 웃는 곳이 되고, 금강산의 단풍이 남북 청년의 셀카 속에 담기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광 산업이나 관광 협력의 성과가 아니라 분단 80년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접근과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북한의 관광산업은 제재와 갈등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평화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광은 정치적 상징을 넘어 경제·문화·신뢰 구축이라는 실질적 변화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 남북협력, 지역개발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돌아가는 ‘관광 평화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평화가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언어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로 체득했을 것이다. 관광은 개방성과 자율성이 생명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가 심한 나라다. 관광국으로서의 입지조건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그렇다고 인접국인 중국인이 인해 전술로 몰려오는 것은 두렵다.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당장 재개할 수도 없다. 현실적인 자구책은 러시아뿐이다. 러우전쟁을 계기로 무르익은 북러관계는 관광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024년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총 2,008명이며, 관광객은 881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중물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스위스식 관광입국이 되겠다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북한의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로드맵이 수반돼야 한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대상 지역이 바로 북중러 접경의 두만강 하구 일대다. 러시아의 하산, 북한의 라선 그리고 중국의 훈춘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여건을 구비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부터 추진해왔던 두만강개발계획(TRADP ⇨ GTI)에는 한국, 몽골도 회원국이고 미국,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지역이 관광지로 부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접국 북한도 수혜국이 될 수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 전역이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 그 때에야 북한은 동북아의 스위스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김일성전집 제88권에서는 ‘관광업이라는 것은

자연경치나 역사유적같은 것을 선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 구경을 시키면서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고, 식료품과 일용품, 기념품 같은 것을 많이 팔아 돈을 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관광지들과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더 잘 꾸리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을 많이 받으려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은 노동당 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김정일은 주로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관광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반면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관광산업 개발 및 육성을 강조하고 현지지도 등을 통해 이를 독려해 왔다. 즉 김정은은 관광산업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과 함께 폐쇄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에서는 관광을 전력과 함께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균형보장, 경제발전 토대마련을 목표로 제시한 핵심전략으로 꼽았다.

김정은은 국제제재로 인해 단기간 내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외화 확보 및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 5개 경제특구도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국제제재 속 관광붐과 함께 관광상품의 특성화, 관광통제정책의 유연성, 관광개발·협력 대상국과 여행사 확대, 선진국형 관광전문기구 확충 및 인력양성 등이 주목의 대상이다. 2014년 4월에는 평양

관광대학을 설립하고 원산사범대학내 관광학부 설치 및 정준택 원산경제대학내 관광경제학과를 신설했다.

북한 관광정책의 새로운 변화 의미¹⁾는 첫째, 경제개발 선봉대로서의 신산업에 대한 김정은의 절박한 의지를 담은 관광산업의 국제화다. 둘째, 국제제재로 인한 대외무역시장 축소 및 경제개발지대에 대한 외자유치 실패 등을 관광산업으로 견인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관광협력에 있어 공식적인 정부차원보다는 직·간접적인 민간차원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다.

북러중 접경의 두만강 하구일대 관광협력

북한 관광산업의 딜레마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에서 관광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다. 즉 관광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서로 다른 측면에서 북한체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핵·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 셋째, 관광산업 자체가 글로벌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한국과 중국에 편중됐고, 상황에 따라 확대와 단절을 반복했다. 최근 러시아와의 관광협력도 교통 여건과 인프라 부족의 한계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북한내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 인접의 두만강 하구부터 관광붐이 조성돼야 한다.

지정학적·지경학적 관점에서 두만강 하구는



〈북중러 3국이 국경을 마주하는 두만강 하구 지역〉

북·중·러 3국이 만나는 끝자락이다. 북러간 국경선은 39.1km에 불과하지만, 수백 년 전 근대사와 수십 년 전 현대사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요충지이다. 중국의 동북3성은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잃고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차항해야 할 입장이다.

문화·생태적 관점에서 북·중·러간 문화관광, 생태관광, 휴양, 수변관광(해수욕장), 오락관광(카지노)을 포괄하는 복합관광지대로 개발하고, 북극시대를 맞아 환동해 크루즈관광과 두만강을 활용한 하천 크루즈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다. 중국 내륙지방과 몽골(연간 150만명), 극동 러시아의 북방 극한지역에서 휴양관광객(체류형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초국경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국제사적 관점에서는 만주사변과 하산(장고봉) 전투의 현장이다. 소련군은 2차대전 개전초인 1938년 7~8월 13일간 일본군과의 하산전투(중

1) 강채연, “김정은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25(2), 2020년, 101-125쪽



*북한은 2009년 GTI에서 탈퇴(비핵화 시 참여 가능)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대상지역〉

국명 장고봉전투)에서 대승하고, 1939년 5~9월 만주국과 몽골의 국경 노몬한 근처에서 재차 벌어진 할힌골(노몬한) 전투에서도 일본군을 물리쳤다. 일제 관동군은 1932년 만주국을 세워 13년간 존속하다가 1945.8.9.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괴멸됐다. 결과적으로 2차대전의 시작과 끝은 북중러 접경의 두만강 하구다.

한민족사적 관점에서는 고구려인 대조영이 698년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는 230년간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융성하다가 926년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현대적 의미로서 북중러(북한, 만주, 연해주)의 초국경 국가인 셈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청 교체기에 여진족 침략에 대항한 녹둔도 전투에서 대승했다. 또한 함경도의 한인 13가구가 1863년 야밤에 최초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남우수리지역 피진허에 이주해서 정착했다. 1882년경 연해주 인구 9만명중 한인이 1만명 이

상을 차지했다. 독립지사들이 일제병탄이후 연해주 일대를 독립근거지로 삼아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했으며, 특히 안중근 의사는 크라스크노에서 단지동맹을 결의했다.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개발계획(TRADP→GTI)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북한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됐다. GTI는 동북아 지역의 유일한 다국가 협력개발 프로젝트로 기대가 컸지만, 자원 조달 문제,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GTI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광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관광분야는 GTI의 국제협력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로 평가된다.

GTI 중심의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북한은 2009년 11월에 GTI에서 탈퇴했지만 2010년 1월 4일에 나진 선봉시를 특별시로 승격 조치함으로써 GTI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히 북한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두만강 국제관광구 프로젝트는 저렴한 관광지를 찾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광객 대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일본, 몽골 등의 관광수요를 염두에 두고 있다.

GTI 중장기 전략보고서 ‘GTI Strategic Action Plan 2006~2015’의 관광분야 액션 플랜을 살펴보면, 두만강지역 국제관광객을 매년 10~15%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①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②국제수준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 ③관광자원 해설능력 향상, ④복수국가 경유 관광상품 개발, ⑤주요 관광시장에 두만강지역 홍보 등 다



〈올 4월 30일에 열린 조려자동차다리 착공식. 기존에는 두만강을 기차로 오갈 수 있는 철교만 있었고 자동차용 다리는 없었다.〉

섯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추진 조치는 ①‘동북아 다목적지 관광협력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구체화시켜 관광분야의 당면과제를 추진, ②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GTI 관광위원회에 비자 관련 정부부처의 참여, ③회원국 관광기관의 협력에 의한 GTI 기초관광통계 DB 구축, ④GTI 복수국가 경유 여행코스 팸투어의 조속 실시, ⑤온·오프라인을 통한 GTI 관광홍보 추진, ⑥GTI 관광개발을 통한 북한의 개방 추진 등이다.²⁾

올해 2025년은 러시아가 GTI 의장국이다. 북러 간에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중이다. 교통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 미러정상회담 이후 러우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미러관계와 북미관계가 호전되고 국제사회의 대북·대러제재가 풀리면, 한반도에도 자유의 봄이 올 것이다. 남북한간 관계회복으로 북한은 김정은이 꿈꾸는 관광입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다만 개선되어야할 남북한간 관광협력의 문제점³⁾으로는 첫째,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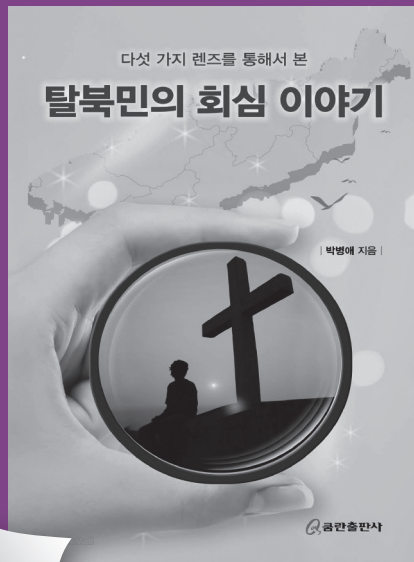
2) 러시아는 제9차 동북아 관광포럼과 GTI 자문회의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두만강지역이 동북아의 관광휴양의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을 전망(메콩강 관광 모델인 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MTCO는 베트남,타이,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중국간 협력 성공)

3) 강채연, 김정은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25(2),2020년, 119~120쪽

객 사고예방 실패 및 남북간 제도 미비, 둘째, 사업의 불안정성과 손실보상체계 미흡, 셋째, 남북한 간 불균형적 협상관계, 넷째,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시스템 미흡, 다섯째, 3류 관광상품으로서의 질적 한계(4不 1高: 불안정, 불안전,不自由, 不만족, 高가격), 여섯째, 관광계 전반의 참여 제한과 소외 등이 있다.

대규모 투자나 송금이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관광 대금이 대량으로 북한에 유입될 경우에도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현재로서는 제재와 교착 국면으로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한국이나 미국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정세 변화에 따라 관광이 가장 먼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야다. 남북간 관광교류가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장기적 동력이 될 것이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다섯가지 렌즈를 통해서 본
탈북민의 회심 이야기

저 자: 박병애

출판사: 쿤란출판사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가 격: 15,000원

탈북민 복음화는 한국 교회가 지나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라면 탈북민 전도와 양육의 경험은 향후 북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하게 될 때 중요한 자양분이 될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다. 탈북민의 신앙 경험이 일선 교회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탈북민으로서의 독특한 경험과 배경이 남한 출신 성도들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출신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제한적인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다면 이들의 신앙 경험과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지 여러 면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민들의 회심과 신앙 성장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 “다섯 가지 렌즈를 통해서 본 탈북민의 회심 이야기”는 탈북민 목회자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여정을 연구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5편의 관련 논문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탈북민들의 회심과 신앙 성장을

살펴본다.

이 책의 주요 인터뷰 대상은 탈북민 목회자와 탈북 여성이다. 먼저 탈북민 목회자의 경험은 회심을 넘어서 헌신된 사역자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북한 출신 신앙인의 영적 성장 전반을 심도깊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모델과 예시가 된다. 이 책의 제목은 ‘회심 이야기’이지만, 책을 들여다보면 회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 여정과 함께 주체사상 극복 등 북한의 문화적 배경에서 특별히 겪게 되는 신앙적 도전 등도 살펴본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마주할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트라우마와 이를 극복한 성장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5개의 논문을 묶은 모음집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각각의 단원이 논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이론적 배경이나 인터뷰 선정 방법 등이 이 책의 각 장마다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도 이해하면서 책을 읽으면 더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이론적 접근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어떤 독자에게는 이런 학술적인 부분이 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건너 뛰면서 읽더라도 내용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며 단순히 북한 출신 성도들만이 아닌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비록 북한 출신 신앙인들의 신앙 여정에 비하면 극적인 사건이나 경험은 없었지만, 나의 삶에도 분명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오셨고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북한 출신인 분들을 만난다면 그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망도 가지게 되었다. 탈북민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와 성도, 그리고 탈북민을 넘어 북한 선교에 대한 안목을 더욱 넓히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섯 가지 렌즈를 통해서 본 탈북민의 회심 이야기”를 도움이 될만한 책으로 추천해본다. 🙏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 핵무장 급진적 확대”



〈8월 18일 5천급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을 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8월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월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훈련을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세에서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등 화해의 손짓을 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잇달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을 외교상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6일 5천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21일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하면서 망신을 샀고, 6월 12일에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새로 진수식을 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전한 것은 대남·대미 적개의를 높여 내부 단결을 꾀하고,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한미를 향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9일)

“탈북 아동·청소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위험 1.3배 높아”

북한 이탈 아동과 청소년이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1.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흥민하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 1천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천여명

의 최대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된 흥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질환 위험은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됐다.

IAEA “北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 추정 건물 신설…심각 우려”



〈울 1월 29일 북한이 공개한 핵물질 생산기지 모습〉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8월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8일 정리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위성사진과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작년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됐고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AEA는 이 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영변의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북한이 농축 시설을 신설했다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6월 IAEA 이사회에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영변에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온드 패러렐’도 같은 달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보고서를 근거로 내달 중순 개최되는 연례 총회에서 북한 핵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20일)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은 2.3배 높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1.7배), 양극성장애(1.6배), 주요우울장애(1.5배), 불안장애(1.3배) 등의 위험도 한국 아동·청소년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앞서 지난 2022년엔 북한 이탈 성인이 국내 성인보다 정신질환 위험이 2.1배 높다는 결과를 같은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홍 교수는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함에도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9일)

미 “트럼프, ‘싱가포르 성명’ 목표 달성 위해 북한과 협상 의지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8월 7일(현지시간) 2025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8월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말했다.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도 맡고 있는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

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7월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 등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에는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공동성명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런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8일) 🐟

러 여행사, 북 원산갈마 관광객 모집… 8월말 방문 일정



러시아 여행사가 외국인 방문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가는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

8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5일부터 9월 1일까지 7박 8일간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첫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버스를 타고 러시아 하산역으로 이동, 열차로 갈아타고 북한 두만강역을 통해 입국한다. 출국하기 전까지 원산갈마 리조트에서 지내며 해변을 즐기고, 마지막 날 버스와 기차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4성급 호텔에서 모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 상품이며 러시아어 가이드도 동반한다.

이 상품 가격은 3~5인이면 1인당 미화 1천 250달러에 2만 루블(약 250달러)이 추가돼 한화로 약 208만원이다. 패키지 인원이 늘면 조금 더 저렴해진다.

이 여행사는 “서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북한의 문화와 역사에 폭 빠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블로거와 사진작가들은 북한의 건축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보기 드문 문화적 순간들을 통해 무한한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북한은 7월 1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했다가 같은달 18일 돌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시범운영을 한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돼 보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문제를 추스르고 다시 상품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평양골프장과 평양 시내를, 10월에는 나선과 평양 시내를 돌아보는 상품이 여러 건 판매되고 있지만, 원산갈마를 방문하는 상품은 예정되지 않았다.

동해의 수온은 8월 말부터 점차 떨어져 해수욕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원산갈마지구는 해수욕이 주요 콘텐츠인 만큼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 상품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에는 관련 상품을 팔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8월 9일) 🐟

“北노동자들, 러 건설현장서 하루 18시간 363일 노예처럼 일해”

러시아에 파견돼 김정은 정권에 외화를 벌여다 주는 북한 노동자들이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거의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8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가 만난 탈주 북한 노동자 6명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18시간 작업에 투입된다. 보통 일과는 오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전 2시까지다. 몇 시간의 쉼잠 후 오전 6시에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1년 동안 휴일은 이틀뿐이다. 노동자들은 파견 기간 내내 현장을 떠나기 어렵다. 합숙소도 건설 현장의 비좁은 화물 컨테이너 등이다.

자유는 극도로 제한된다. 북한 보안 당국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외출은 한 달에 한 번뿐이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 조를 짜서 외출해야 한다. 원래는 2명씩 외출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감시가 강화되면서 5명씩 조를 짜야 한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 정보당국이 BBC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 노동자 1만 명이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북한이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협력을 강화한 올해는 그 수가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의 통

계를 봐도 지난해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다. 대다수는 학생 비자로 입국했는데, 이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 파견직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정권의 신뢰를 받는 인물들만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에야 파견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극악한 환경을 버티고 벌어들이는 돈은 월 100~200달러(약 13만~26만원)에 그친다. 소득 대부분을 북한 정권에 ‘충성 수수료’ 명목으로 뜯긴다. 그마저도 노동자들이 바로 손에 쥌 수 있는 현금은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용돈 정도로 극히 일부이며 나머지는 장부에 기록했다가 귀국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저기 뜯기고 남은 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북한 노동자는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번 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목숨을 건 탈주를 결심했다. 북한 당국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들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 이런 조치 때문인지 러시아를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이 최근 연 10명 정도로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2일) 

1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비핵화 외에 분야에서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북미 대화의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NGO들의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관광 산업이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북한의 중점적으로 투자해왔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7월에 개장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로 인한 관광객 저변 확대와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고, 자유관광이 불가능하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지로서의 경쟁력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관광업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가져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북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주목됩니다. 관광산업이 북한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이 변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공급과 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평등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습니다. 대다수는 학생 비자로 입국했는데, 이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

(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체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 복송으로 인해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사실이 적발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대북 라디오 및 미디어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디오는 폐쇄적인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파관리법을 개정하며 관련 통제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라디오나 휴대폰 등 주파수를 사용하는 미등록 전자 기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 금지, TV와 라디오 등에 고정해놓은 주파수 해제 금지, 외부의 라디오 신호 등에 대한 방해전파(재밍, Jamming)관련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향한 복음의 전파는 멈추지 않고 북녘의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에 수고하는 방송 기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음질로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북녘의 청취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7 악화하는 제삼국 북한선교현장의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시행 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늘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더욱 정밀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엄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북한의 지하교회가 외부와의 연락 과정에서 적발되어 적어도 수십여 성도 가정이 큰 피해를 입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억압적인 주민 통제와 아울러 외부세계와의 소통과 연락을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특히 북한 지하교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한 당국의 집요한 추적과 감시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사역이 보안에 유의하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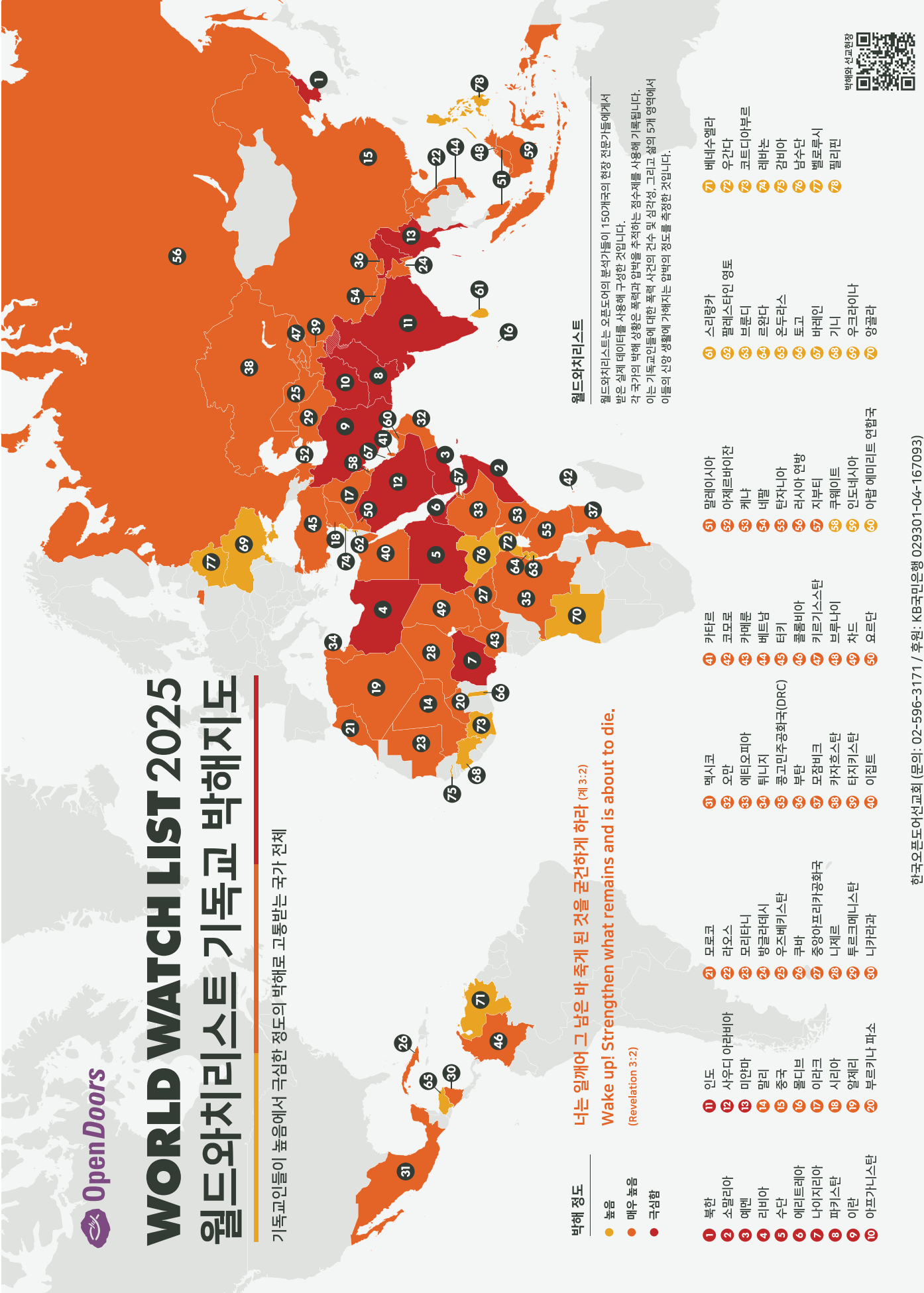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8월 29일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웁니다!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모집 대상

오픈도어 기도운동에 헌신할 **기도용사 30명**

일정 안내

2025년 9월 9일 ~ 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서 9시 30분

(10월 7일, 11월 11일은 기도회 인도 실습 및 휴식)

날짜	핵심 주제	사역 이해
9월 9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One Million Prayer
9월 16일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Arise Africa
9월 23일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Deaf Community
9월 30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1)	Displaced People
10월 7일	추석 연휴 / 기도회 인도 실습 1	
10월 14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Secret Believers
10월 21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Project Pearl
10월 28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World Watch List
11월 4일	하나님의 밀수꾼 (2)	Persecuted Woman
11월 11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STS / IPM / SED
11월 18일	휴식 / 기도회 인도 실습 2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 (3)	오픈도어 선교전략 이해

장소 및 방식

-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 방식: 현장 참여 + 온라인 강의 병행
- 내용: 강의 + 기도회 인도 실습 + 중보기도

등록비

5만원 (교재 및 실습자료 포함,
수익금은 박해지역 사역 후원에 사용됩니다)

문의 및 신청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기

- 이메일: odsk@oepnddoors.or.kr
- 전화: 02-596-3171
- 팩스: 02-594-3171
- 신청 마감: 선착순 30명!



**"우리는 고난 받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세요.